

정체성의 탐구로서의 조형 언어

박철화(중앙대학교 예술대 교수)

표상이든, 표현이든, 형식이든, 아니면 제도로든 예술작품의 비밀을 해명하려는 많은 개념 틀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에 대한 보편적 설득력을 갖는 답은 없는 것 같다. 그런데 비밀에 대한 해답이 없다는 사실은 얼핏 불행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행복한 대목이기도 하다. 해답이 없는 모호함을 운명처럼 껴안아야 한다는 점에서는 불행이겠으나, 여전히 풀리지 않는 비밀을 찾아 새로운 모색을 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는 행복일 것이기 때문이다. 예술을 여행에 비유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존재와 세계의 새로운 모습을 찾기 위해 쉽 없이 움직이는 인간의 노력, 그 영혼의 여행이야말로 예술의 본질적 속성이기 때문이다.

특히 프랑스 대혁명 이후의 예술, 즉 현대예술(modern art)은 '새로움'의 창조를 자신의 존재이유로 삼고 있다. 대혁명 이전 구체제 속에서의 예술이 세계를 장식하는 기술(ars 또는 techne)에 가까운 것이었다면, 현대예술은 기존의 세계와 삶에 대한 질문을 던짐으로써 낡은 세계를 떠나 새로운 세계를 찾아나서는 모험이었다. 물론 그것은 많은 경우 단절로서의 결별이면서 동시에 끌어안음으로서의 감싸기였다. 하지만 어쨌든 낡은 인습의 굴레를 벗어나, 굳어진 감각과 인식을 거부하며 새로운 삶과 세계의 가능성을 찾아 나서는 일은 현대예술에 주어진 과제이자 특권이었다. 새로워야 하기에 떠나는 것이다. 그 점을 독일의 대문호 괴테는 『파우스트』를 통해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향하기 마련”이라는 말로 요약했다.

정문경은 일찍이 자신의 작업을 ‘길’이라는 테마로 설명한 적이 있다. “이전의 작업에서 수없이 덧칠된 물감을 지워내고 그 비워진 공간에 길의 흔적을 남기며, 무언가를 그리고, 다시 닦아내고 하는 것은 불확실한 삶의 길을 형상화 한 것이다. 이번 작품들에선 절대가치를 향하여 맴돌고 있는 나의 길을 주제로 담아보았다.” 사실 작가가 마주하고 있는 종이 혹은 캔버스란 자신의 영혼을 비추는 거울이며, 그 위를 오가는 선과 색은 그 영혼의 얼굴, 즉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려는 몸짓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정체성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다. 존재는 자연이 그러하듯 변하는 것이며, 생명으로서의 움직임이 갖는다. 예술이 매순간 길을 떠나는 여행이 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 나는 ‘지금의 나’이면서, 내가 아니다. ‘분명한 나’란 죽음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으며, 생명으로서의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나’로 변해가기 때문이다. 가장 멀리까지 확장되고, 가장 높이까지 승화될 자아(自我)를 만나기 위해서 말이다.

정문경의 작업은 그런 변화와 생명의 여정을 보여준다. 한국화를 전공하고서도 20대에 일찌감치 뉴욕에 가서 서양화를 공부한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는 한국과 미국 사이에서 몇 번씩 작업과 생활의 근거지를 옮겨가며 계속해서 자기의 세계를 만들어왔다. 종이와 캔버스를 포함한 다양한 재료와 색과 기법을 통해 그의 작업은 동양과 서양, 예술과 현실, 전통과

실험, 구축과 해체의 과제를 아우른다. 때로는 덧붙이고 또 때로는 지워내면서 그는 어느 순간 드러나는 이미지를 탐구하는데, 그 이미지란 바로 자아 그 자체일 것이다.

하지만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그 자아는 고정된 것도 단일한 것도 아니다. 그런 점에서 자아란 친숙하면서도 낯선 그 무엇이다. 이름을 붙이는 순간 그 얼굴이 달라지는, 잡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미끄러져 달아나는, ‘미지(未知)’의 복합적 생성이 바로 자아다. 정문경이 자신의 작업을 ‘Journey to the Unknown’이라는 부르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친숙한 ‘지금의 나’를 떠나는 부정(否定)을 통해서만 미지의 ‘진정한 나’를 만날 생성의 가능성을 얻는 것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부정과 생성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영혼의 얼굴을 찾는 일이야말로 예술로서의 여행이다.

그의 최근 작업은 콜라주다. 그런데 이 콜라주의 재료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주변의 익숙한 사물들이다. 자신의 일상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그런데 당겨 말하자면, 우리의 자아란 일상을 떠날 수 없으며, 설령 일상을 떠났다 하더라도, 위대한 신화의 여행이 모두 그러하듯 결국 일상으로 돌아온다. 물론 보다 더 성숙한 자아로서 돌아온다는 것이 그 안에는 전제되어 있다.

따라서 그의 콜라주는 일상에 대한 사랑의 제의라 할 수 있다. 친숙한 자아와 결별하면서 일상을 벗어나는 일이란 그 일상과 ‘함께 다시 태어나기’ 위한 실존의 모험이다. 그 모험이 없다면 자아에게 일상이란 감옥일 뿐이며, 우리의 자아는 그 모험을 통해서만 생성의 가능성으로서 ‘유동적 자유’를 얻을 수 있다. 그러니 진정한 떠남은 새로운 자아로 태어나 다시 돌아오는 사랑이며, 여행은 사랑의 에너지가 충만하다는 점에서 즐거운 축제다. 정문경의 최근 작품에 ‘Dance’라는 이름이 자주 등장하는 것이 바로 자신의 작업 자체가 축제로서의 의미를 갖는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 흥미로운 것은 드로잉 작업이다. 거기에는 한국화의 색채와 운필(運筆), 현대적 용어로 바꾸자면 ‘브러쉬 스트로크(brush stroke)’가 들어있다. 한국화에서 장지에 색을 올리고, 지우고, 선을 긋는 일은 서양화의 콜라주에서 붙이고, 떼어내고, 이동하는 일과 본질적으로 같은 속성을 지닌다. 정문경의 드로잉은 그런 점에서 한국화와 서양화를 기법의 차원에서 이어주는 징검다리이며, 동시에 그의 자아 탐구가 일관된 것임을 보여주는 궤적이다. 얼핏 분방하게 보일 수도 있는 그의 ‘유동적 자유’는 결국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나가는 작가로서의 생명력의 표현인 것이다. ‘존재의 춤’이라 부를 수 있을 이 조형 언어의 축제가 기꺼이 우리를 부르는 것은 그래서 말 그대로 자연스럽다.

-----끝-----